

序

한氏族에는 族譜가 있고 한나라에는 史記가 있나니 나라에 史記가 없으면 그 時代의 文物과 制度를 考察할수 없으므로 後王이 저을삼아 本관을 資料가 없게되고 氏族에 族譜가 없으면 여러代 내려오는 宗孫과 支孫의 實況을 把握하기 어려우므로 後孫이 敦睦하는 情誼를 等閑히 생각할 것이니 族譜와 史記가 그 名稱은 다르나 그 意義는 같은 것이라 이러함으로 世家에서의 族譜를 貴重하게 생각하는 것이 옛부터 거의 通例로되었다. 우리 李氏도 忠貞公의 처음 草案한 庚子譜에 뒤이어 僉樞公이 壬午譜를 刊行하고 그 後 辛亥年과 庚戌年에 兩次的 修譜가 있었는데 庚戌年부터 今日에 이르기까지 또다시 七十年이 經過하였는지라 這間에 나고 죽는者가 서로 잇달았은즉 幾千名의 얼굴이 變換되었는지 모르며 宗派와 支派가 東西로 聚散하였은즉 幾百戶의 居址가 變動되었는지 알수 없을것이니 이같은 各地의 各人을 族譜로 거두어 統合하지 아니하면 멀지아니한 將來에 한 할아버지의 孫子들이 行路의 過客과 다름없이 될것이라 어찌 悚懼하지 않으리오. 더구나 始祖이신 襄烈公이 北方으로 부터 내려오시어 우리 李氏로 創始하셨는바 그어른의 偉大한 功勲과 높이신 志操는 千古에 無雙하여 예전의 張留侯와 范大夫라도 可히 한겨름 물러설만하며 武厚公이하의 어른들도 代々로 仕宦이 끊이지아니하였는바 그중에서도 松溪公의 文藝와 忠壯公의 忠節과 東萊鄭氏의 烈行과 榮州公兵使公의 孝道는 더욱 世人을 驚歎케 하였으니 文과 忠과 烈과 孝가 모두 한家門에 集中되었다 하겠고 그外에도 또

한 名卿과 碩學이 끊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드디어 우리 李氏가 東方의 名族이 되어 後
 孫의 自矜하는바가 되었거늘 今日에 와서는 時代의 變遷에 따라 譜學에 對한 觀念이 稀
 薄하여 집에 아비가 가르치지 못하고 子息이 배우지 못한 까닭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烈
 祖가 있었음을 漠然히 알지 못하고 變변치 못한 劣孫이 되어도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
 여 自然히 祖先을 尊崇하는 마음이 蘇生되지 못하고 宗族을 사랑하는 情誼가 衰退하게
 되니 이모양으로 나가면 將次는 무슨 地境에 이르는지 알지 못할찌라 어찌 寒心事가 아
 니리오. 우리는 이러한 精神을 革新하여야 할터인바 革新하는 方法은 修譜부터 먼저 하여야
 하겠으므로 내가 前부터 留意하였으나 六、二五動亂과 그외의 事情으로 인하여 뜻을 이루
 지 못하고 於焉하는 동안에 無氣力한 늙은이가 되었으므로 다만 咄嘆할뿐이던中
 에 丁巳年봄부터 族侄인 鍾性(任實)君이 率先하여 二、三의 뜻맞는者와 같이 修譜에 着手
 함으로 그 뜻을 壯하게 생각하면서 有終의 美가 있기를 은근이 祈願하였더니 日前에 君
 이나와 收單事務를 畢하고 不遠間에 出版에 들어가셨다하며 兼하여 告하기를 樞密公의 序
 位問題도 僉宗의 同意를 得하여 庚子譜를 좇아서 第一位로 還元한다하니 얼마나 기쁜 消
 息인가? 생각하건대 許多한 派系의 後孫이 이로 인하여 一冊에 收錄되고 平生의 生面
 이던 遠族도 이로 인하여 一室을 같이한듯이 多情할 것이며 樞密公의 序位에 對하여도
 二百年來의 疑案이던 것이 이제 解決을 보게되니 感慨가 無量하여 形言할바를 모르겠고
 泉下에 계신 先靈도 應當 웃음을 띠우실것이라 어찌 큰幸事가 아니리오. 또 듣건대 이

변譜事に 모든 아우나 조카는 勿論이고 京鄉各地의 宗人이 모다 一致된 마음으로 協力
하였다는 것은 우리宗中の 團結을 誇示한 것인즉 雀躍하는 기쁨을 禁할수 없는 일이라
앞으로 더욱 힘쓰기를 付託하는바이며 要請한 卷首의 말은 내가 本是 文章力이 不足하
여 酬應함을 踟躇하였으나 固辭할수도 없음으로 數行의 蕪辭로 느낀바를 叙述하여 序文
에 代身하노라

西紀一九七九年 己未仲春

跋序

우리宗中에서 修譜하기를 여러번하였나니 前에는 庚子와 壬午의 兩譜가 있었고 後에는 辛亥와 庚戌의 兩譜가 있었으나 庚子譜는 草譜에 그쳤고 壬午譜는 비로소 完備되었으되 조금 疏忽하였던 關係로 別譜를 두도록 되었으며 辛亥譜와 庚戌譜는 모두 派譜에 不過 하였으니 이것이 疑訝하기는하나 아마도 不得已한 事情으로 因함인가할뿐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며 至今과 庚戌年の 相距를 計算하면 벌써 七十年이 되었는지라 俗談에 말하기를 十年이면 山川도 變한다 하였거니와 七十年은 곧 十年의 일곱번짜인 歲月인즉 這間の 變貌된것이 果然 어떠하였으리요. 國家는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光復이 되었고 또 六、二五 같은 大戰亂을 겪었으며 이사이에 處한 우리宗族은 죽은者와 남은者의 代替가 許多하였고 戰亂으로 因한 移動이 甚하여 同宗間에 일이 있어도 서로 議論할수없고 患難이 있어도 서로 救援할수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사람의 잘못으로 만緣由한 것이아니요. 天時와 人事의 變遷에 따른 것이다. 만일 이것에 對한 先後策이 없으면 同宗이 路人과 다름없게 될날이 不遠할 것이니 어찌 嘆息을 禁할수 있으랴. 이것을 미루어 생각하면 先人들의 派譜나마 適期에 汲汲히 修整한 眞意가 系統을 分明히 하고 序列을 整齊하게 하여 祖上을 높이고 親族을 사랑하는 精神을 後進에게 涵養하려던 것임을 짐작할수 있으니 可히 欽仰할만한 일이라. 우리後孫된者로서는 當然히 본받아야할 일이로되 아직까지 다시 修譜하지 못한것은 先靈에 對하여도 甚히 惶愧한 일이나 이 譜事는 可히 달로만 成就되

는 것이 아니므로 누가 선평 率先하여 發議하지 못하였더니 丁巳年 봄에 族弟 鍾性君이
敢然히 修譜할것을 自任하고 여러弟兄들과 合心하여 寒暑와 飢渴을 참으면서 兩年間을 活
躍한 끝에 大體의 整備를 맞이고 이제 印刷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 勞苦에 깊이 致謝
하는 바이다。出版에 臨하여 나에게 跋文을 付托하는바 나는 元來부터 淺學薄識으로서 文
辭에 能하지 못할뿐 아니라 우리 家門의 盛德과 이번 修譜의 趣旨는 이미 秉季氏의 序
文에 빠짐없이 叙述되었은즉 나로써는 다시 무엇을 重言復言하리요。그러하나 鍾性君과 濟
永君의 誠意가 이같이 篤實하였고 나亦是 이번 譜事에 叅劃하였던 한사람으로서 喜悅의
情을 禁하지 못하여 한두마디의 말로 卷末에 쓰노니 僉宗은 拙文임을 웃지말고 眞意의
있는곳을 諒察하여 더욱 서로 勉勵함을 바라노라。

己未仲春下澣

跋序

嗚呼吾李之修譜英祖壬午哲宗辛亥二度刊行然其時漏落者有之而刊行已過幾甲當時諸公雖欲更刊僉議不一但修自系之派譜而派譜亦未修之門太半矣噫光復乙酉之春江華得季永平周季任實裕性不肖陪行遍訪畿湖諸宗大策遂定適值光復無論社會家庭醉於慶滿秩序紊亂事未就緒中三公相繼淪逝兼遇庚寅六二五之變信息相阻收復後彌阿里式厚公墓享時更發此論僉議遂同而意外亦謬出獎學會之椿事永入深淵此其門運耶可爲痛哭者也何幸今總務鍾性君松山覺心墓祭時累夕發議不啻不嫌風雨寒暑東馳西走以得僉宗協力收單正書已入剞劂雖是鍾性盡誠竭力諸宗協心團結之致先祖之靈默佑之力至大矣喜幸如之惟吾宗敬身進德敦族益睦即光先裕後之道宜其勉之哉

今度之役會長仁性望九之年不避寒暑而陣頭指揮亦老宗濟永（龍仁）不嫌枯淡終始戮力運性宴性範性物心兩面善爲周旋以成大計其功最著耳

西紀一九七九年戊午仲春

刊行辭

族譜는 宗族의 歷史요 血統의 精華다. 一般 書籍과는 달리 子孫萬代에 傳하여주는 金石之文이요 또한 萬古 不變의 家寶인 것이다. 우리 青海李氏의 系譜는 지금으로부터 二百年前인 英祖三十八年에 처음으로 發行된 壬午譜를 始初로 그後에 辛亥譜와 庚戌派譜가 刊行되었다. 後世에 傳해주신 先祖들에게 새삼 感謝와 敬意를 表하지 않을수가 없다. 우리가 現時點에서 武厚公派譜를 發刊함에 있어서도 많은 時日과 精力을 消費해야만 하였거늘 하물며 交通과 通信의 不便하고 科學技術이 發達하지 못하였던 그 當時의 勞苦를 생각할 때 後孫된 우리로서 始祖 青海伯襄烈公의 赫赫한 業績과 崇高하신 精神 그리고 歷代先祖의 遺志를 繼承하기 위하여 우리 系譜를 더욱 補完함으로써 훌륭한 文獻으로서의 價値를 높임은 勿論 後孫의 譜學乃至 史學의 貴重한 典據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번 武厚公 派譜 發刊의 本旨는 各派 代表者 會議時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우리 青海李氏의 世系와 事績을 嚴正明確하게 記錄하여 後世에 傳하는 同時에 爲先心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宗族間의 親睦을 두터이하며 後孫들의 繁榮과 人材養成을 圖謀하는데 있고 修譜의 原則은 過去의 壬午譜 辛亥譜 庚戌譜를 繼承하여 그 內容과 體制를 劃期的인 革新으로 增補 發刊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번 辛亥譜가 發刊된지도 一百二十九年이 되었고 庚戌派譜도 發刊된지가 七十年の 歲月이 經過하는 동안 子孫錄에 많은 變動이 있었음은 勿論 特히 各門中 諸宗들의 絶對的인 要望에 따라 마침내 이 거

창한 事業에 着手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全宗員의 所望이 헛되지않아 各地方 收單有
 司 宗員諸位의 極盡한 協力으로 그 內容이나 體制에 있어서도 名實共히 青海李氏 武厚
 公派 世譜로서 잘꾸며졌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 宗門의 寶典으로 永久히 保存되어야
 할것이다. 무릇 族譜를編 修하는데있어 史的根據를 度外視하고 祖上의 功績을 함부로 記錄하는
 것은 修譜의 意義에 어긋날뿐 아니라 또한 祖上을 위하는 結果가 되지도 못하는것은 잘
 알고 있기때문에 可能한限 모든 史的 考證과 典據에 忠實했다는 점도 밝혀두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今次 우리 武厚公派譜로 말하면 어느모로 보거나 他的 譜牒에 此해서 遜
 色이 없을만큼 向上發展된 譜牒이라고할 수 있을 것이다
 事蹟編에는 修譜史上 처음으로 舊譜의 原文을 翻譯하여 添載하고 또 始祖 青海伯襄烈
 公眞影과 青海伯家訓 青海伯墓所圖 水原 獨井 抱川에 位置한 祠宇및 武厚公墓所圖까지 寫
 眞을 插入하는 同時에 子孫錄에는 女子까지 收錄하였으며 子孫錄의 年代는 西紀年號와 干
 支로 表示하였다 歷史的으로 살펴 보건대 族譜는 옛날 中國에서 시작되어 처음에는 王
 室系統과 帝王年表를 爲主로 하다가 漢나라를 거쳐 魏晉時代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學問
 으로서 譜學을 研究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世界 各 先進國에도 오래전부터 譜學研究에 非常한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또
 美國에 國際族譜研究會가 있으며 우리 韓國에도 支部가 있다고도 한다.
 이러한 事例를 勘案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이에대한 知識이나 關心이 보편화 되어 있으

면서도 學問의 一分野로서의 譜學은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族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族譜自體를 封建殘滓視하고 年老층만의 關心事로 생각하는 것은 도리어 現代潮流를 度外視하는 態度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름지기 譜學을 체계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며 先代의 事蹟을 記錄함에 있어서도 正確한 考證과 典據에 充實해야 할 것이다. 今次 樞密公序位에 關하여서도 高麗史 李朝實錄等 家史에 正確한 考證에 依하여 還位함에 對하여는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考證에 依하여 어느때 어떠한 經論을 갖출 政治家로서 또한 어떠한 淵源을 가진 學者로서 혹은 어떠한 業績을 남긴 文藝家로서 國家社會에 많은 貢獻했느냐를 밝히는 同時에 眞心으로 훌륭한 祖上을 받들어 追慕하는길을 體得함으로써 우리의 자랑스런 傳統과 美風良俗을 길이길이 다저가야 할 것이다.

또 始祖 青海伯 襄烈公께서 말씀하신 家訓 忠淸 孝謹을 追慕하며 各宗員이 더욱 團結하여 親睦에 힘쓸 것이며 諸般宗中 事業을 遂行함과 同時 國家社會에 이바지할 수 있는 契機로 삼아서 우리 青海李氏 聲譽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믿는 바이다.

이번 武厚公派譜 修譜史上 가장 많은 人員이 參與한 派譜라지만 北韓에 있는 諱孝儉少尹公派 諸宗員 및 南韓一部 宗員의 不得已한 事情으로 不參이 있음은 甚히 遺憾스런 일이다.

今次 修譜에 關하여 많은 難題가 있었으나 모두 圓滿이 解決되고 마침내 有終의 美를 거두게된것은 오로지 會長 仁性氏의 理解와 陣頭指揮하신 역할이었으며 各派 宗員의 協助에 힘입은 것이고 또한 各派 地方 收單有司에 對하여 無限한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今次 修譜를 契機로하여 앞으로 青海李氏武厚公派의 系譜가 더욱 補完됨으로써 爲先의 根源이 되어 宗親間에 敦睦과 後孫들의 繁榮 그리고 人材養成의 바탕이 될것을 祈願하면서 위 몇마디로서 삼가 刊行辭에 代記하는 바이다.

西紀一九七九年己未仲春二月 日

常任 總務 鍾性

常任副總務兼財務 運性

常任副總務兼財務 晏性

副 總務 甫性

財務工學博士 範性

校正有司 濟永 謹書

青海李氏舊譜의 序(壬午譜)

우리 青海李氏의 發祥한지가 거의 四百年이 되도록 아직까지 族譜가 없었다가 이제야 族譜가 이루어졌다. 始祖는 青海伯이신바 伯의 先世에 浮海라하는 분이 계시어 元나라에 벼슬하여 戰功으로 五千戶의 封地를 받으셨다하니 伯에게 幾世祖가 되는지 알지못하나 萬姓譜에는 伯의 曾祖가 된다하였고 雅遠이라는 분이 元나라에 벼슬하여 征西大將軍에 이르셨고 本朝에서 恩典을 미루어 議政府院君으로 贈職하였는바 이분이 伯의 皇考가 되신 다하며 世上에서 일러오기를 伯이 岳武穆王의 後裔가 된다하기도하고 或은 말하되 元來는 나라의 姓과 同一하다하니 이兩說中 어느것이 옳은지 알수없고 또한 確信할만한 證據가 없으나 疑問은 疑問대로 傳하는것이 謹慎하는 道理라 대개 伯의 豐偉한 功烈은 널리 사람의 耳目에 빛나 비록 婦人이나 兒孩나 賤役하는 사람까지도 聖朝에의 蕭何 曹參 褒公 鄂公같은 名臣으로만 알고있을 뿐이며 그 勲業만이 그 어른의 平生抱負를 다한것이 아닌줄이야 어찌알리요。玉悵에서 嚴한 말씀으로 益陽伯을 杜護하여 善竹橋의 冤痛한 罪에 물들지 아니하시고 晩年에는 桑鄉으로 돌아가시어 끝내 獻陵의 부르심을 辭讓하셨으니 그 卓越하신 識見과 慷慨하신 節義는 當時의 여러 勲臣中에서 對等할者가 없으며 後孫에게 내려주신 敎訓도 忠과 清과 孝와 謹의 四字를 爲主하셨음으로 이를 繼承한 後昆도 文人이나 武夫를 莫論하고 모두 骯髒하고 清白한 것으로 한箇의 規模를 삼아 벼슬에 나가서는 財物탐내는것을 羞耻로 생각하고 國難에 臨하면 나라에 몸받치는 것

을 本分으로 생각하여 祖父로부터 孫子까지 近親으로부터 遠親까지 모두 廉潔로 世上에 이
 름내고 孝謹으로 몸을 닦지 아니하는者가 없어 壬辰과 丙子의 亂에 立節한 선비가 代代
 로 끊이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忠壯公의 癸亥에 靖社勲을 세우시고 甲子에 臣節을 다하
 심은 어찌 낳아주신 분을 辱되게 아니하고 先祖를 빛내주신 것이 아니라요. 古人이 말하
 기를 百年동안의 清白한 家風이 한때의 盟誓받은 勲功보다 낫다 하거니와 우리 李氏는 盟
 誓받은 勲家로서 清白을 兼하여 三百餘年이 내려왔은즉 古人의 貴히 여기는 清白은 우리
 의 家規에 不過하며 저마다 行하기 어려운 主眼으로 仁을 이룬者가 한두분이 아니었으
 니 一時的의 富貴로 門戶를 빛나게 하는者와 比較하면 그 輕重이 果然 어떠하리요. 青海
 伯以後로 十餘世가 되었는데 처음은 派分된 寸數가 가까울뿐 아니라 宗族의 數도 또한 많
 자 아니하여 한번도 修譜한일이 없음으로 族祖인 統相公이 이것을 慨然히 생각하시어 비
 로소 譜牒을 草案만하고 미처 刊行하지 못하였더니 至今은 世代가 점점 멀어지고 支派
 가 더욱 갈리어 前에는 功服總服에 該當되는 近親이 이제는 길가는 行人이 되었은즉 疾
 病과 疴癢이 있더라도 어찌 相關할수 있겠는가? 이것을 悚懼스럽게 생각한 끝에 族弟인
 慶遇가 一二의 宗人으로 더불어 祖先을 높이고 宗族을 團合할 計劃으로 草譜를 다시 點
 檢하여 必要없는것은 刪削하고 빠진것은 加添하였으며 또한 잘못된것은 改正한곳이 많은
 바 本宗에 對하여는 詳細히 記述하고 異姓에 對하여는 大略만 記述한 것은 内外를 辨
 別한 것이요. 옆으로는 派支를 고루살피어 萬이나되는 宗族을 한곳에 모으고 우흐로는 繼

統을 바로잡아 한祖上的 그늘에 돌아오도록 하니 참으로 青海李氏의 完全한 族譜가 되
 었는지라 한번 凡例를 보면 可히 그 이루어진 法을 分明히 알찌로다. 슬후다. 내가 일
 직부터 范文正公의 義田宅을 두어 宗族을 庇護한일을 欽慕하여 恒常 마음속으로 商量하
 기를 비록 古人的 行事を 當場은 본받아 行하지 못할지라도 만일 能히 古人的 마음만
 이라도 본받아 잊지 아니하고 努力하면 그祖上을 높이고 宗族을 생각하는 道에있어 應當
 그距離가 過히 멀지 아니하여 거의 先祖에게 得罪하지 아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系譜가 이
 루어졌은즉 譜書에 실린 多少의 사람이 모두 우리 青海伯의 苗裔 아닌자가 없는지라 生
 平의 얼굴이나 이름을 알지 못하던 者도 이로因하여 그사람을 알게되는 同時에 枝流를 거
 슬러올라가 根源을 찾아내면 昭穆이 뚜렷하게 定하여져 前日의 路人이 이제는 一門의 宗
 人으로 變하리니 敦宗睦親하는 마음이 어찌 油然而 나오지 아니하리오. 이後부터는 遠近의
 모든 宗人은 더욱 忠淸과 孝謹의 道를 힘써 先業을 펴트리지 말고 또 모두 范公의
 마음을 본받아 念念不忘하면 이것이 일러오는 千里를 隔하여도 한집안같고 몸은 萬으로
 놓였으나 마음은 하나로 뭉친다는 옛말과같이 되어 修譜하는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리니
 우리同譜 한사람은 子孫萬代에 이르도록 힘쓰고 또 힘쓸지이다.

原文

崇禎三壬午(英祖三十八年西紀一七六二年)五月下旬에 十二世孫 慶泰는 삼가 序하노라.

我李之貫青海幾四百年而舊無譜譜今成矣始祖曰青海伯伯之先有諱浮海仕元立戰功封五千戶不知爲幾

世祖而萬姓譜爲伯曾祖有諱雅遠仕元爲征西將軍本朝推恩贈議政府院君是爲伯皇考云世謂伯爲岳武穆後裔或謂本與國同姓兩說未知孰是而亦不可徵信然疑而傳疑慎也蓋伯之豐功偉烈照人耳目雖婦孺隸僮舉知爲聖祖之蕭曹褒鄂而亦豈知其勲業不足以蓋平生乎嚴辭玉帳不染竹橋之冤血晚節桑鄉終辭獻陵之勤召則其發超之見慷慨之義有非開國諸勲所可埒比而垂裕之道不失乎忠清孝謹四字則後昆之所以承家者無論橐韃鉛槧骯髒清疎的然成一箇規模居官而知徇財之爲可耻臨難而知死上之爲本分自祖而孫由親而疎莫不以廉潔名世孝謹持己壬丙之難代不乏立殪士而忠壯公之勲於癸亥節於甲子者尤豈非無忝所生有光祖者耶古人以百年清白謂勝於一時帶礪而我李以帶礪而兼清白者三百年有餘則古人所貴自是家計而況又有成仁之美不一而足則其與鍾鼎蟬貂爛門輝戶者輕重果何如哉自伯以來爲十餘世派分者近而族且鮮舊無收族之舉前此族祖統相公慨然於斯草定譜牒未及刊行顧今世代寢遠支派益疏在昔功總之親今直爲行路則疾痛疴癢亦安有相關之道乎惟此之懼族弟慶遇乃與一二宗人謀所以尊祖敦宗依草譜更加修潤或刪或添亦多有改正處而詳於本宗略於異姓所以辨別內外也旁治而會其萬上治而歸于一允爲青海之完譜一見凡例可以瞭然於成法矣噫余嘗慕范文正義田宅之事未嘗不商量於心頭而曰雖不行古人之事若能懷古人之心則其於尊祖敦宗之道應有不中不遠之效而庶不得罪於先祖矣今焉系譜旣成則譜中多小人莫非我青海伯之裔矣生平之不相面而不知名者因此而得其人溯流尋源分昭定穆前日之路人今變爲一門之人則敦穆之心安得不油然而生乎自今以後遠近諸宗益勉乎忠清孝謹無墜先業而又皆以范公之心爲心則是所謂千里而同室萬身而一心而無負乎修譜之意矣凡我同譜之人至于萬子孫勉之哉勉之哉

新譜의 序(辛亥譜)

우리 李氏의 族譜는 族祖인 統相公이 庚子年(肅宗四六西紀一七二〇年)에 經始하시고 曾祖 考인 僉樞公이 壬午年(英宗二八年西紀一七六三年)에 完成하셨은바 楊湖의 宗長인 正甫氏가 實로 이일에 發議하고 協力하여 주었으니 대개 得姓한以後 처음으로 있는 盛舉로서 祖 上을 높이고 後孫을 引導하는 規模가 偉大하다 하겠도다。其後 八十餘年 사이에 本孫과 支孫 이 더욱 불어나고 氏族이 점점 繁盛하여 暮服이 功服으로 되고 功服이 總服으로 變하여 各處에 散在함에 面目이 生疎하여지고 痛癢間에 서로 關係하지 아니하여 처음은 同 堂이던것이 終來는 路人같이 되었으니 그敦睦하여야 할 情誼가 果然 어디서 솟아나오리오 或時나 이렇게될까 두려워하여 이에 一二의 宗人으로 더불어 系譜를 重修하려하여 建議한지 十餘年만인 이제야 비로소 始作하였으니 아마도 事業의 發端도 또한 時期가 있는

가 하노라. 昭穆의 次序와 嫡支의 分別같은 것은 傳하여 내려오는 우리집 規模가 있으므로
로 마음대로 더하거나 깎아내지 못하고 한결같이 舊譜에 依하여 謹嚴한 法을 지켰으며
字號와 品秩과 生卒年과 墓所와 配位에 있어서는 或 잘못된 것이 發見되면 訂正하였으니 이
것은 實로 前이나 後를 莫論하고 昭詳히 하려는 것이며 또한 敢히 私見으로 獨斷하지
않은 것이라. 대저 善을 쌓은 자는 남은 慶事가 있고 德을 심은 자는 厚한 福을 받나니 이
것은 속일수 없는 冥冥한 理致로다. 옛적 高麗末年에 政事가 紊亂한 까닭으로 八域이 塗
炭에 빠져 그 情況이 저 周나라 百姓이 남은 자가 없다는 옛말에 가까웁게 되었거늘 우
리 襄烈公이 山岳의 精氣를 받으신 姿質로서 塵埃속에 있는 참임금의 氣像을 알아보시
고 그의 神聖함을 도와 물에 빠지고 꺼꾸로 매달린 듯한 百姓을 救援하여 주심으로 東
土의 生靈이 힘입어 蘇生되었으니 남에게 善을 쌓고 世上에 德을 심은 일이 可히 깊고
두터웁다 할지라. 古記에 말하기를 萬人을 살린 자는 그 後孫이 반드시 封地를 받으리라
하였는바 公의 活人한 것이 어찌 萬으로만 計算하리요. 그러한즉 公에 對한 하늘의 報答
이 어찌 朱紱과 茅土로 一身을 榮華롭게 하는데 그칠 뿐이리요. 그 餘蔭이 百世까지 덮이여 後
裔를 繁昌케 함으로 雲仍의 數가 자못 萬千이나 되는바 그 中の 뛰어난 人物을 論하면
或은 朝廷에서 直言으로 正氣를 불러 일으키고 或은 國難에 當하여 몸을 받이여 忠節
을 다하였으며 그外에 學識으로 士林의 信仰을 받고 詞章으로 藝苑에 떨친 자가 代代로
잇달아 나와 家聲을 墜落시키지 아니하였으니 可히 낱아주신 어른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先蔭을 穩全히 누리는것이라 하겠도다. 슬프다 統相의 經始하신 뜻을 追慕하고 僉樞公의 完成하신 功을 繼承하여 近百年동안 이루지 못하던일을 이제 이루었으니 어찌 敢히 主謀者의 勞苦라고만 하리요. 實은 諸宗이 同心하고 協力하여준 效果라 할지라 至今부터는 昭와 穆이 井井하여 어지럽지 아니하고 宗과 支가 濟濟히 서로 統率되어 千里가 비록 멀다하나 咫尺같이 서로 應하고 萬家가 비록 分散하였으나 한집에서 同居함과 다름없이 되었으니 이譜書로 因하여 祖上을 追慕하고 宗族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油然히 솟아 나오지 않으리요. 先公이 修譜를 重히 여기고 後孫이 重修를 急히 서두른것도 이러한點을 생각한 까닭이라. 出版의 일이 장차 完成됨에 따라 記述하는말이 冊첫머리에 있어 야 하겠는바 모든 公議가 나에게 付託하므로 文章이 拙하다하여 辭讓하지 못하고 右와 같이 쓰노라.

崇禎四辛亥(哲宗二年西紀一八五一年)季春上潮에 十五世孫 承元은 삼가 序하노라.

原文 (新譜序)

我李之譜族祖統相公經始於庚子 曾考僉樞公圖終於壬午而楊湖宗長正甫氏實倡事而先後之蓋得姓後創有之盛舉尊祖之意裕後之謨其偉哉伊來八十餘年之間本支愈繁氏族漸盛自朞而功功而又總散在各處面目便成素昧痛癢亦不相關始也同堂終焉行路其於敦睦之誼果安在哉惟是之懼乃與一二宗人謀所以重修系譜建議廿餘載今始就緒會事之發抑有其期矣至若昭穆之次嫡庶之分自有我家規模不敢恣意筆削一依舊譜以從謹嚴之法字號品秩生卒墓配或正訛誤此實詳於前而亦不敢擅於後也夫善之積者餘其慶德之

種者享其福此理之不可誣於冥冥者也粵昔麗季失政八域塗炭幾乎周民之靡遺矣惟我 襄烈公以降岳之
姿托識塵之契奉神聖而救斯民援之於溺水解之於倒懸東土生靈於是乎其蘇善之積於人德之種於世可謂
深且厚矣記曰活萬人者後世必封公之所活豈以萬計哉然則公之食報於天不止朱紱青第之榮於一身而已
故百世之餘蔭克昌其後雲仍之繁衍殆萬千其麗就其出類而言之立朝輿論臨難成仁以至學識之有賴斯文
詞章之善鳴藝苑世世接武不墜家聲可謂無忝所生以藉先蔭者耶嗚呼追統相經始之意繼僉樞圖終之功重
成近百年未遑之事非敢曰有勞實賴諸宗同聲齊力之效也繼自今昭穆井井不紊宗支濟濟相統千里雖遠有
若咫尺之相應萬家雖分無異一室之同居追遠敦宗之意安得不油然而自譜中出來乎此所以先公之重於修譜
而後繩之急於重修者也剗剗之役將垂其成記述之言宜弁卷首僉議咸屬於余不得以拙蕪而辭其任

青海李氏武厚公派譜 卷之一

始祖 시조

之蘭 지란

字式馨

檀紀三六六四年(西)

紀一三三一)高麗忠

惠王辛未生

明朝授封青海伯

本朝策輸忠奮義翊贊景

運開 國推忠秉義宣

威翊戴定 杜奮忠効

節同德佐 命三勲官

止輔國崇祿大夫門下

侍中贊成事兼判刑曹

事

檀紀三七三五年(西

紀一四〇二)太宗二

年壬午四月十一日卒

享年七十二

贈諡襄烈

檀紀三七四三年(西

紀一四一〇)太宗十

年庚寅配享 太祖廟

庭墓北青良家面別薦

臺良坐一云甲坐

大提學文景公黃景源

神道碑銘撰

○配象山郡夫人谷山康

氏父禮儀判書普戴祖

二世

子和尙 화상

樞密副使一云禮部尙書忌五月十六日墓伊川琵琶項

○配貞敬夫人安東權氏父吉昌君文忠公近北單云朱氏

忌十一月九日

謹按公之序位在庚子舊譜則(忠貞公壽民所編)居第一在壬午譜則(僉樞公慶泰所編)居第二因之而序

位混亂紛爭不絕是吾宗之一大不幸事而不可不早速釐正者故今般修之初遍閱高麗史李朝實錄及家史等

諸錄則公之出仕已先乎武厚公者十三載矣且錄公以長子者亦至數三處則公之爲長子者無疑而但所欠者

公之末年公見咎于上國不可不隱遯當始祖襄烈公之下世公不得入主喪與祀者耳是知始祖喪故時喪人錄

之但記三子者及武厚公致祭文之稱以勲盟之胄將家之胤者良由以也然而序位自序位也承祀自承祀也則

以不得承祀而便謂非長子則是亂人倫也且於壬午譜云北青所在功臣子孫錄券公居第二而今考國史編纂

會所藏功臣嫡長錄及中央圖書館所藏國朝功臣錄則初無樞密公居二之文前所謂公居第二之說果未知何

據也故於今譜則斷之以大義承忠貞公之意而得各宗多數之贊同更置公于第壹位庶幾諒之其詳細在別付

考證書須參照焉

子和英 화영

輔國崇祿大夫判都摠

制府事義興三軍府事

兼判刑曹事 贈諡武

厚忌十二月十六日墓

漢城東小門外美化里

庚坐有表石莎臺欄干

長明燈石人

公性謹厚罕言語非官

事未嘗出時或因公出

門輒屏去騶率若無官

者然

太 宗世宗兩朝知其謹慎

三世

子孝貞 효정

奉朝賀青海君

后 无

子孝良 효양

僉節制使

后 无

子孝溫 효온

文科官止嘉善大夫工

曹參判

子昌祖 창조

敦寧府都正

后 无

子益鼎 익정

宜止慶源府使

忌五月十六日

子百齡 백영

子千齡 천영

八

(獨井派)

八

八

八

八

八

八

八